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정신신체적 증상의 상관관계고찰

최혜경*, 김지희**

*을지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Effects of Traumatic Event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Burnout, Physical Symptoms, and Social and Occupational Functions in Korean Fire fighters

Hea-Kyung Choi*, Jee-Hee Kim**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Eulji University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대원들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2,167명을 대상으로 2008년 1월20일부터 2008년 2월 15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도구는 일반적 특성 및 근무특성 설문, 외상사건경험 설문, 사건충격척도(IES-R-K), 정서적 탈진척도(MBI), 신체증상 측정도구, 사회 및 직업기능척도(SOFAS)를 사용하였다.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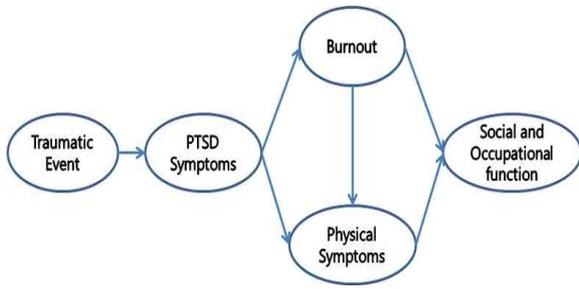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사회 및 직업적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소방공무원의 일반적 특성 및 근무 특성, 외상사건 경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 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을 파악한다.
- 2)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 경험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 증상, 사회 및 직업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검증한다.

2. 가설설정

- 가설 1. 경험한 외상사건의 종류가 많을수록 PTSD 증상이 심할 것이다.
- 가설 2. PTSD 증상이 심할수록 정서적 탈진이 심할 것이다.
- 가설 3. PTSD 증상이 심할수록 신체 증상이 심할 것이다.
- 가설 4. 정서적 탈진이 심할수록 신체 증상이 심할 것이다.
- 가설 5. 정서적 탈진이 심할수록 사회 및 직업기능이 낮을 것이다.
- 가설 6. 신체증상이 심할수록 사회 및 직업기능이 낮을 것이다.



[그림 1] Hypothetical research model

II. 연구결과

1.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가설적 모형이 실제와 잘 부합하는 최적의 모델로 나타났다.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6개의 가설은 가설검증을 위해 실시한 경로분석에서 모두 지지되었다.

소방공무원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종류가 많을수록 PTSD 증상 정도가 심하며 PTSD 증상 정도가 심할수록 정서적 탈진과 신체 증상을 많이 호소하며 정서적 탈진과 신체증상이 심할수록 사회 및 직업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방공무원의 38.2%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위험군으로 나타났으며 위험군은 비위험군에 비해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이 더 심하였으며 사회 및 직업기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방대원 중 구급대원이 경험한 외상사건의 종류가 가장 많았으며, PTSD 증상, 정서적 탈진, 신체증상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및 직업기능 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대원들의 외상사건의 경험에 의한 PTSD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PTSD 증상 및 정서적 탈진을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제도화하여 개인의 사회 및 직업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III. 고찰

소방공무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노출 빈도가 직접적인 희생자들보다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대량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방송과 관심은 늘 재해 피해자 중심이었고 묵

묵히 맡은 책임을 다하는 소방대원들은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고 소방대원들이 재해의 또 다른 희생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무시되어 왔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외상사건에 의한 이러한 개인적, 조직적 영향의 결과는 국민의 건강과 안녕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관리는 소방대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방대원들의 외상사건 경험에 의한 PTSD, 정서적 탈진을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제도화하여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 소방공무원의 현실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상사의 개인적 배려에 따라 비전문적인 접근에 그치고 있다[1]. 따라서 소방대원들의 외상사건의 경험에 의한 PTSD 증상을 조기에 파악하고 PTSD 증상 및 정서적 탈진을 조기에 중재할 수 있는 관리프로그램의 운영을 제도화하여 개인의 사회 및 직업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2][3]. 특히 공무원으로서 위계조직 내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문제나 어려움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방공무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조직 내에 적극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최혜경, 김지희. “위기상황 스트레스해소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1, No.4(B), pp. 1923-1937, 2009.

[2] 김태한., “소방공무원 현장충격 수용 실태의 실증적 분석 - 성격, 자기통제, 사회적 지원의 통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3] 소방방재청, 2005년 연보, 2005.